

SOULRIDE
Episode 3

Blue revision
□□
□□
□

Written by

Lahoe Hyun

INT. 오리엔티스 기지 / 시스템 취조실 - DAY

동녘의 몸 결박된 채로 수십개의 케이블이 온몸에 달려있다.

주위를 둘러싸고 각종 시스템을 보고 있는 대원들.

은성, 동녘의 앞에 앉아서 동녘을 빤히 보며 심문한다.

서현, 그 옆에 서 있다.

은성
이름과 주민 번호.

동녘
최동녘. 주민 번호는 모릅니다.

은성
어떻게 주민 번호를 모를 수가 있지?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동녘
부모님이 퍼스트 임팩트 때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주워서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은성도 서현도 답답하다.

서현
...준섭, 기억 자료 이미지 렌더링 끝났나?

준섭, 시스템을 보다가 마무리 하며 대답한다.

준섭
네... 이제 막 끝났습니다.

서현
최근 자료부터 플레이 해봐.

준섭
네.

준섭,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 동녘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재생된다.

<몽타주 - 동녘의 기억 자료>

- DR.NEX가 동녘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
- 서현과 싸우는 장면

등등의 기억들이 비디오 화면처럼 지나가고.

더 리와인드를 하는데.

<몽타주 - 동녘의 기억 자료 / 계속>

- 바닥에 쿵 떨어져서 깨지는 서현의 두개골
- 서현의 과거 기억들

서현, 자료 보고 놀라고.

서현

잠깐 멈춰 봐. 이건 누구 기억이지?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동녘.

동녘

이거는 서현 씨 의식이 제 몸에 들어왔을 때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아니에요. 서현 씨의
기억 아닌가요?

서현, 당황하며.

서현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

동녘

...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현

은성 대장. 내가 어디서 떨어지거나 한 적이 있었나?

은성, 머뭇거리다...

은성

글쎄...

(말을 돌리듯)

일단 더 리와인드 해줘.

준섭

네.

화면에 나타나는 동녘의 기억들.

<몽타주 - 동녘의 기억 자료 / 계속>

- 1부의 서바이벌장
- 블랙마켓 강 사장네 소울라이딩

등등이 재생되다가. 갑자기 화면이 블랙된다.

서현

무슨 일이야? 계속 플레이해줘봐!

준섭

이상합니다. 자료가 랜더링이 안 돼요. 무언가에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은성

다만?

준섭

가장 처음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서현

플레이해줘.

준섭

네.

준섭,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 동넉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은 온통 검은색.

중앙에 흰 빛의 그림자가 아른거릴 뿐이다.

서현

제대로 플레이 되고 있는 거 맞아?

준섭

네. 최대 화질입니다.

그때 화면에서 들리는 오디오, 서창의 목소리다.

서창(V.0.)

바흐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원들.

서현

뭐라는 거야?

서창,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심폐 소생술을 하는 중인지 가슴을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서창(V.0.)

바흐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바흐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중앙의 흰 빛이 밝아지며 서창의 얼굴이 보인다.

서창
깨어났니? 정신이 좀 들어?

동녘의 시점, 주위를 살핀다.

움막 같은 곳이다. 중간중간 기계 장치들이 놓여있다.

움막 밖으로 폐허가 보이고, 전쟁터 같은 총격음이 들린다.

갑자기 쿵! 하는 폭격음과 함께 다시 눈을 감은 듯 암전.

동녘에게 묻는 서현.

서현
이게 몇 년 전 기억이야? 태어날 때 기억은
없어?

준섭
이게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동녘
...이거 나도 기억 안 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게 남아있죠?

서현
보통 기억이 나지 않아도 몸에는 다 남아 있기
마련이야. 준섭, 몇 년 전이야?

준섭, 데이터를 보더니.

준섭
세포 분열 수치로 계산하면 24년 전입니다. 약
2077년인 것 같습니다.

서현
재생 가능한 기억이 더 있나?

준섭
몇 달 후 기억입니다.

화면 재생 되면, 시체를 얹하고 있는 서창의 모습 보인다.

동녘의 시선, 시체 구석구석 얹을 하는 손놀림과 서창을 번갈아 따르고 있다.

동녘의 목소리인 듯한 아이의 목소리 들린다.

어린 동녘(V.0.)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서창 묵묵히 일하다가.

서창

...아마도.

어린 동녘(V.0.)

할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구요?

서창 묵묵히 일하다가..

서창

...우린 모두 죽어야 한단다.

동녘의 시선에 갑자기 이상한 화면들이 겹친다.

실험실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듯한 모습.

서창의 젊은 시절의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드는 오디오.

어린 동녘의 목소리다.

어린 동녘(V.0.)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자이 바실라 데이 옴..

다시 시체를 얹하던 서창, 놀라서 동녘을 바라본다!

동녘, 근처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 시체의 심장을 찌른다!

어린 동녘(V.0.)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자이 바실라 데이 옴!

그리고 칼을 서창에게 겨누는 어린 동녘!

주변의 거울에 어린 동녘의 얼굴이 비쳐 보인다.

어린 동녘(V.0.)

네가 나를 죽였다. 서창.

서창, 당황한 표정으로 주사기를 꺼내 들더니.

동녘에게 주사한다.

다시 암전되는 기억.

모두들 충격을 받은 느낌.

서현, 동녘에게 묻는다.

서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나? 네가 나를
죽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동녘.. 어안이 빙빙하다.

동녘

나도 몰라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한재호 (OFF SCREEN)

지후. 자네인가?

모두 돌아보면, 한재호 들어와있다.

동녘 앞으로 다가오는 한재호

동녘

네? 지후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한재호, 동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읊조린다.

한재호
바실라 비탈리 모르트 지후.

동녘
네?

한재호
바실라 비탈리 모르트 지후.

갑자기 동녘의 눈이 돌아가더니...

오리엔티스의 모든 시스템이 꺼진다!

당황하는 모든 대원들!

갑자기 동녘, 몸을 떨며 읊조리기 시작한다.

동녘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자이 바실라 데이
옴...

동녘, 다시 눈을 뜨고!

꺼졌던 오리엔티스의 시스템이 다시 켜진다.

그리고 블랙으로 잠겨있던 동녘 기억의 비디오가 전부 화이트로 변해간다!

준섭
기억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구 랜덤으로 재생되는 기억들!

<몽타주 - 동녘의 새로운 기억 자료>

- 어린 은성의 모습과 서현의 모습들.
- 실험실에서 한재호와 서창과 함께 연구하는 모습들

등등이 마구 뒤섞여 패스트 포워딩 된다.

화면을 보고 놀라는 은성과 서현.

화면 점점 빨라지고,

시스템에 접속되어있던 캣츠아이 과부하가 걸리는 듯.

갑자기 큰 빛을 내더니 팍! 하고 꺼져버린다.

동녘, 눈을 감고.

전 시스템 꺼진다.

한재호, 담담하게 눈을 감은 동녘에게 얘기한다.

한재호
오랜만입니다, 지후 단장.

한재호, 당황한 은성을 보며.

한재호 (CONT'D)
은성아, 인사해라. 네 아버지다.
(서현을 보며)
서현, 당신 남편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혹스러운 은성과 서현.

그리고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는 동녘.

INT. 지후의 실험실 - NIGHT

어린 은성, 실험실의 캡슐에 들어 있고.

젊은 서창과 한재호, 실험실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실험 가운을 입은 지후, 은성과 똑같이 생긴 은성1을 앞에 세운 채 눈을 뺏히
쳐다보고 있다.

겉먹은 은성1.

지후
너의 이름은?

은성1
은성이에요.

지후, 은성을 계속 노려보며.

지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은성1
피자요.

지후, 들고 있는 질문지에 쓰여있는 답변, 피자에 동그라미 친다.

지후
제일 좋았던 기억은?

은성1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거요.

지후, 다시 동그라미 치고.

지후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좋아?

은성1
(머뭇거리며)
... 엄.. 마...

지후, 기분이 나쁘지만... 다시 동그라미 친다.

뒤에서 가운을 입은 서현, 지켜보고 있다.

지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은성1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눈동자가 커진다.

긴장하는 서현.

캡슐 안의 은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라고 외치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후, 더 고압적으로 밀어부친다.

지후 (CONT'D)

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은성1, 지후의 표정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지후, 울음이 듣기 싫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취총을 꺼내 은성1에게 겨누는데,

더욱 자지러지게 우는 은성1.

서현, 당황하여 뛰어와 가로막는다!

서현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지후

이건 마취총일 뿐이야. 이 소리를 더 듣고 있을
순 없잖아. 어차피 또 실패작인데.

지후, 마취총을 은성1에게 쏘려하면,

서현 마취총을 뺏어들고 지후에게 겨눈다.

서현

그리고.. 결국 또 내 자식을 죽이는 건 나한테
시키고?

지후, 어이없게 웃더니,

지후

(캡슐 쪽으로 손짓하며)

우리 아들 은성이는 저기 멀쩡하게 있어. 당신,
이 친구는 은성이가 아니야. 실패작일 뿐이야.
지금 대답 못 하는 거 봤잖아?

서현

그래도 엄연한 생명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자식을 죽이지 못 해!! 이건 아니야!

한재호, 서현을 달래며 나선다.

재호

저와 서창이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가서
좀 쉬시죠.

울부짖던 서현, 갑자기 달려가서 한쪽 벽면에 가득 놓인 캡슐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캡슐 안에는 포르말린에 절여진 실패작 은성들이 가득하다.

캡슐 안 쪽의 은성 울부짖기 시작하고,

지후, 냉정하게 돌아서 실험실을 나간다.

따라나가는 서창.

남아서 서현을 위로 하는 한재호.

성인 은성(OFF SCREEN)

그만 하시죠.

하면 스톱되는 화면.

INT. 오리엔티스 실험실 - DAY

한재호의 온 몸에 케이블이 꽂혀있다.

은성과 서현을 비롯한 대원들, 한재호의 기억이 재생되는 화면을 보고 있는 중이다.

(*앞 씬은 한재호의 시선으로 연출될 예정)

한재호

은성이는 어차피 기억하는 상황이겠고,
서현이는.. 아니 사모님은 기억하지 못 하죠?

서현, 큰 충격을 받은 표정...

서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제가
다시 클론된 거죠?

한재호

동넉은 깨어났나?

준섭, 동넉 쪽을 보라는 듯 손짓을 하며.

준섭

네... 아까요... 근데 다시 동넉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재호, 옆자리를 보면 케이블을 뜯어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동넉 보인다.

한재호

동넉...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

동넉

네? 아니... 일단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기억은 뭐고... 저는.. 진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재호

일단 조금만 더 있어주겠나? 부탁하겠네.

동넉

...부탁까지 하신다면... 아.. 알겠어요..

한재호, 준섭과 준호를 향해.

한재호

캣츠아이는 완전히 파괴된 건가? 아까 있었던
지후 단장의 기억은 다시 봉인된 상태고?

준호

우선 캣츠아이는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준섭

현재는 기존 동녘의 기억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시 락이 풀렸을 때 급하게 녹화된
몇몇 기억들은 있습니다.

한재호

음. 그럼 혹시 75년 5월 31일의 기억이
남아있나 확인해 줘.

준섭, 시스템을 보더니.

준섭

네!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화면 재생되면, 지후의 시점으로 서현을 강하게 흔드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다.

서현

당신 왜 이래! 난 싫어!! 정말 싫다구!!!!

지후, 더 강하게 서현을 겁탈이라도 하듯이 침대에 밀어던지는데.

서현 울부짖으며 도망쳐 나가고.

같이 쫓아 나가는 지후의 시선에서 갑자기 화면이 끊긴다.

준섭

여기까지입니다.

한재호

나머지는 동녘의 기억에서 재생해주게. 동녘의
몸에 서현의 의식이 있을 때 같이 공존했던
기억.

준섭, 동녘의 기억으로 화면을 전환하여 그 기억을 찾는다.

준섭

플레이 하겠습니다.

화면 재생되고. 서현의 시점으로, 실험실의 높은 곳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장면.

화면 위에 75년 5월 31일로 로그가 찍혀있다.

서현

그러면.. 제가.. 저 날.. 투신을 해서 사망했던 건가요?

한재호 끄덕이고.

서현 (CONT'D)

그리곤 제 남편이었다는 지후가 저를 다시 클론해낸 건가요?

한재호

그렇습니다.

서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서현

그러면 블랙마켓에 있었던 제 클론들은요? 그건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한재호,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한재호

일부는 이 곳에서 만들어졌던 것.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DR.NEX가.. 아니 서창이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현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클론으로 만들어야했죠? 저 남편이란 지후는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구요.

한재호

글쎄요. 저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도 있었겠지요. 다만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지후 단장은 당신의 클론에 무엇보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클론을 만들어냈지요.

서현

제가.. 클론이라면.. 저는 왜 멜트다운을 겪지 않나요? 그리고 제게는 비활성화된 의식도 없지 않나요? 물론 기억나지 않는 것들 투성이지만?

은성.. 말을 시작한다.

은성

당신은 아버지가 만든, 거의 완성형의 클론이니까요. 멜트다운을 겪지 않는. 즉, 의식이 하나 뿐인.

서현, 은성을 보며.

서현

은성... 대장은 그럼 내가 너의 엄마라는 걸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은성 끄덕이고.

서현 (CONT'D)

그러면, 동녘이 지후인 것도 알고 있었어?

은성

... 아버지인 것은 몰랐지만, 아버지의 기술로 만들어진 완벽한 클론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

동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녘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예요? 누가 다시
정리 좀 해줘봐요. 너무 복잡해!

한재호, 동녘을 빤히 바라보며.

한재호

동녘, 아니 지후 단장, 당신은 당신의 최종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의 클론입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기억을 봉인해 났기에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

동녘

아니.. 내가 나를 언제 클론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뭐구요?

한재호

그건 나도 정확히 모릅니다. 서창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아직도 멍한 표정의 동녘.

INT. 오리엔티스 내 또 다른 실험실 - DAY

서창 역시 온몸에 케이블이 꽂힌 채, 양쪽 팔이 각각 실험도구에 묶여 있다.

마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형상이다.

치호와 대원들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참관하고 있는 동녘과 서현, 은성, 한재호.

재호

기억 데이터는 아직도 재생이 안 되나?

치호

네. 전부 노이즈로만 읽힙니다. 강제적으로 락이
걸린 상태처럼 보입니다.

재호

...내가 서창이었더라도 그랬을 거야.

치호

게다가 거꾸로 된 상태에서도 편도체가 너무 안정적입니다.

재호

다시 세워주고, 의식을 온 시켜줘 봐.

치호

네, 알겠습니다.

치호 스위치를 조작하자, 서창을 묶은 십자가 돌아가더니 바로 선 상태가 된다.

대원 중 하나, 창과 같은 막대기로 서창의 복부를 찌르자 강한 전류가 발생하고, 서창 눈을 뜬다.

한재호, 서창 앞으로 다가서서.

한재호

서창, 나 재호일세. 알아보겠나?

아무 대답 없는 서창.

동녘, 갑자기 서창 앞으로 뛰어가서는.

동녘

할아버지! 나 알아 봐요? 동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던 거예요? 날 왜 키운 거고, 또 왜 죽이려한 거예요? 도대체 그 화장장에 있던 건 다 뭐구요?

서창, 동녘을 빤히 쳐다보더니.

서창

바실라를 기억하나?

동녘
네? 그게 뭔데요?

서창, 동녘을 뵈히 쳐다보다가 아까 재호가 했던 같은 주문을 읊조린다.

서창
바실라 비탈리 모르트 지후.

동녘.. 아까와 달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은성과 서현 놀라지만,

재호 이미 그럴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

서창, 재호에게 묻는다.

서창 (CONT'D)
재호, 동녘에게 어디까지 알아내었나?

한재호,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한재호
하하. 단도직입적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동녘이 지후의 클론이란 것까진 알아내었지.
나머진 자네가 다 락을 걸어놔서 아직 알아내진
못했네. 지후의 코드도 잠깐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막혔어.

서창, 고개를 끄덕.

한재호 (CONT'D)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알려줄 순 없나?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지후 단장의 클론 기술이야.
그걸 알려주면, 자네가 그간 DR.NEX란 이름으로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는 내가 선처를
부탁하겠네.

서창
...캣츠아이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

한재호, 갑자기 난처한 듯 주위를 둘러보곤.

한재호

원본이라니.. 자네가 훔쳐가서 무슨 일을
벌였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찾은 캣츠아이는
지금 파괴되었네.

서창, 한재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한재호 역시 서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참을 있다.

서창

왜.. 나를 죽이지 않았지?

한재호

다시 말하지만, 자네가 훔쳐간 지후 단장의 클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서창

그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이미 훌륭하게 클론을
하고 계신 분께서.

재호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의 클론 기술은
소울라이딩의 연장 기술일 뿐이지 않나. 즉,
클론을 하면서 자연 발생된 의식을
비활성화하고, 그 위에 다시 의식을 라이딩하는
것. 그로 인한 피해는 멜트다운.

서창, 갑자기 껄껄 거리며 웃는다.

서창

그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한재호, 동녘을 가리키며.

한재호

여기 자네가 그동안 숨겨왔던 증거가 있지 않나.
클론을 했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의식.

(MORE)

한재호 (CONT'D)

그리고 라이딩을 해도 죽지 않는 의식. 이게
바로 지후 단장이 완성한 기술 아닌가?

서창,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동녘을 보며.

서창

너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

동녘,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난다.

동녘

아니.. 할아버지.. 그럼 날 왜 키웠어요?
애초에 죽였으면 됐잖아요? 나는 할아버지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지후요? 나는 그런 기억 애초에
있지도 않아요! 부모님 기억도 없는 나한테
할아버지가 전부였던 말이에요!

동녘, 감정이 더욱 고조된다.

동녘 (CONT'D)

그래.. 아까 나한테 숨겨져 있었다는 기억도
봤어요. 내가 지후란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는 내
친구이자 동료인데, 내 기술이 탐이 나서,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그 기술로 시험
삼아 나를 다시 클론해 본 거고, 그걸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테러를 일으키고 다녔구요! 난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정말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는데.. 나는 범죄자를
위해.. 그것도 나를 죽였던 범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어요.

동녘 흐느끼며,

동녘 (CONT'D)

그래요. 나는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어야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알고선 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녘, 한재호를 향해.

동녘 (CONT'D)

원장님. 지금 나 좀 죽여주세요. 어차피 저는
겁데기예요. 제 원래 기억이 갖고 있던 기술은
이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냥 죽여주세요. 빨리요!

은성, 총을 꺼내어 동녘의 머리에 겨눈다.

은성

그만하고 입 닥쳐.

동녘

아, 좋아. 얼른 싸 줘. 너 내 아들이었다고
했지? 그래 아들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얼른 당겨!

동녘, 머리를 총구에 계속 들이대는데.

은성, 방아쇠를 당길 듯 하다가 총으로 동녘의 머리를 휘갈긴다.

바닥에 쓰러지는 동녘.

은성

네가 동녘이든, 내 아버지든 나도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

동녘

...

은성

하지만, 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술의
증명이야.

(MORE)

은성 (CONT'D)

네 머리 속에 숨겨져 있는 기술이든, DR.NEX의
머리 속에 있는 기술이든 우리는 빼내야해. 그
기술만 빼내고 나면, 고통스럽게 죽여줄 거야.
네가 그동안 네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고통스럽게. 네 아내이자 내 어머니에게 가했던
고통보다 더 잔인하게.

은성, 총을 거두고 그대로 자리를 뜬다.

남아있는 서현과 대원들, 벌어진 상황에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다.

그저 눈을 감고 있는 서창.

한재호 역시 난감해하고 있는데.

준호, 뛰어들어오며 한재호에게.

준호

원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의원님들이 급히
찾으십니다!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짓는 한재호.

INT. 오리엔티스 브리핑 룸 - DAY

전과 같이 의원들 홀로그램 모니터에 잔뜩 떠 있고,

브리핑 룸 한가운데 취조당하는 포지션으로 자리한 한재호.

서현도 함께 있다.

의원1

DR.NEX를 잡았는데, 기술을 아직 찾지
못했다구요?

한재호

네.. 아직은 ..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 의원

전에도 말했지만 애초에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구요?

한재호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찾지 못했지만, 기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의원2

그럼 차라리 빨리 언론에 알리고, 우리 군에 인도해서 일단 수감을 시킨 뒤에 취조를 하든 심문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총선이 코앞이에요!

서현, 흥분해서 거든다.

서현

언론 보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감은 아직은 시기 상조입니다. 저희가 더 검사해 봐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 버럭하며,

강 의원

아니, 당신은 빠지고! 이번에 DR.NEX 소탕도 결국 우리 군이 급파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요? 당신네 오리엔티스는 전멸 직전이었어요!

서현, 할 말이 없다.

강 의원 (CONT'D)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 한 원장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클론 기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읽힙니다!

서현, 다시 발끈하며.

서현

의원님. 우리 원장님께서 총선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님께서 완벽한 클론 기술을 가지고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강 의원

솔직히 한 원장, 음흉하게 뒤에서 작전 짜는 거 아니요? 클론 기술,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소? 소울라이딩이면 괜찮다고! 어쭙잖게 있지도 않은 클론 해준다고 흑세무민해서는! 속셈이 뭐요? 그렇게 인기 관리해서 대선이라도 나오는 게 목표인 거요?

서현, 참지 못하고 한 마디 덧붙이려는데,

한재호 막아서며.

한재호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정 원하신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군이나 수감 시설에 DR.NEX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클론 기술에 대한 제 마음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서현

원장님! 아직 기술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의원들에게)

... 다만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할 수 있도록 오리엔티스를 수감시설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해주시요. 저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강 의원

그 놈의 클론 클론.. 좋소. 그러면, 혹시 클론
기술이 발견된다면, 우리 당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겠소? 그래야 한 원장 당신이 정치에
관심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소?

재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

원장님!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재호, 서현을 향해 워워 하는 손짓.

재호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주십시오.

분한 서현. 담담한 표정의 재호.

EXT. 한적한 도로 - DAY

군 소속의 콘보이 차량과 수송 트럭, 그 주위를 둘러싼 병력들의 차량이 이동 중이다.

그 뒤편에는 오리엔티스의 차량들도 보인다.

아머 유닛 ZZBB51 을 탄 은성.

그 주변을 치호, 준호, 준섭 등의 부대원이 바이크 등을 타고 함께 호위하며 이동
중이다.

INT. 은성의 차량 안 - DAY

비행 은성, 걱정되는 듯이 무전을 한다.

은성

일단 짬 소리 못하도록 잘 감시해줘. 동녘이
확실히 우리 편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서현(V.O.)

알았어, 대장.

INT. 수송 차량 안 - DAY

서현 무전을 받고 있다.

서현

여기 감시 카메라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은성(V.O.)

알겠어. 수고.

서현 무전을 끊고, 옆에 있는 동녘을 살핀다.

동녘, 앞쪽에 철창으로 감금되어있는 서창을 노려보고 있다.

옆에는 코카, 사마엘 등의 DR.NEX 부대원들도 같이 감금되어 있다.

서창, 눈을 감고 있는데.

동녘

나한테 더 할 말은 없어요? 할아버지?

서창, 그대로 눈을 감고 있다.

동녘 (CONT'D)

정말 끝까지 이러기예요? 정말 나는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정말 눈곱만큼도 정이 없었어요?

서창

...

동녘

나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툭툭
내뱉어도. 할아버지가 전부였을 뿐이에요.

서창

...

동녘

그래... 그만합시다.

동녘, 포기한 듯 자리에 앉는데..

서창, 갑자기 눈을 뜨며.

서창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나?

동녘, 다시 철창 앞으로 다가가며.

동녘

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예요? 어차피 할아버지
지금 교도소 가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곧
죽을 거예요!

서창

다시 묻는다. 너는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나?

동녘, 발끈하며.

동녘

네! 차라리 그러고 싶어요! 제 손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서창, 동녘의 눈동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서창

너는 나를 죽이지 못 한다. 너는 동녘이야.

동녘, 화가 치밀어 올라,

허리춤에 차고 있는 총을 꺼내어 서창의 얼굴에 겨눈다.

동녘

아뇨.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서창,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서창

그럼 내가 열을 셀 테니. 그때 죽여주게. 열..
아홉..

동녘, 당황하는데,

서창, 계속 숫자를 세어간다.

서창 (CONT'D)

여덟.. 일곱..

동녘, 방아쇠에 얹은 손가락이 떨린다.

서현, 동녘을 말린다.

서현

동녘아, 쏘면 안 돼. 우리 권한이 아니야!

동녘.. 화를 버럭!

동녘

아니?! 내가 쏴 거야.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죽일 거야!

서창, 계속 숫자를 센다.

서창

셋.. 둘.. 하나..

동녘,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동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동녘, 결국 총을 내려놓고 오열하기 시작한다.

동녘

못 쏘겠어요... 할아버지... 나.. 못
쏘겠어요...

서창,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서창
그게 동녘이다. 넌 동녘이야.

동녘, 오열하며...

동녘
이런 내가 정말 싫어요! 왜 나를 키웠어요! 왜
죽이지 않고 이용했어요!

서창
...나도 죽이고 싶었다만.. 삶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더구나.

서현, 서창을 막아서며.

서현
더 이상 사적인 얘기는 금지입니다! 당신은
동녘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서창, 서현을 지긋이 바라보며.

서창
우리 다시 봅시다.

서현
네..?

서창
당신을 지켜요. 허물어지지 말고.

서현
지금 저까지 가스라이팅 하시는 겁니까?

서창
아뇨.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서현, 총을 꺼내어 서창에게 겨누며.

서현
 나아말로 당장 당신을 죽일 수 있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서창,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서창
 발라스 모굴리스.

서현
 ...뭐?

서창
 발라스 모굴리스. 발라스 모굴리스.

핑!!!

갑자기 코카의 머리가 터진다!

핑하고 사마엘의 머리도 터진다!

당황하는 서현!

순간 밖에서 코카와 사마엘 등이 타고 있는 DR.NEX 군단의 차량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당황하는 오리엔티스 대원들, 군부대원들.

DR.NEX 군단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하고.

DR.NEX 군단, 서서히 서창이 탄 수송 차량에 다가오는데.

서창, 서현을 향해 무언가 읊조린다.

서창 (CONT'D)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서현의 눈동자 갑자기 돌아가고.

서현 뒷목의 불이 초록색으로 변한다.

INT. 은성의 차량 - DAY

은성의 ZZBB51의 네트워크 신호가 갑자기 커넥티드로 바뀌더니,

대원들이 멀티 조종 모드로 변하는 것이 보인다.

당황하는 은성.

은성

서현!! 왜 갑자기 멀티 모드야?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디스커넥트! 디스커넥트!!

INT. 수송 차량 안 - DAY

서현, 계속 미동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이다.

놀란 동녘, 서현을 흔들려 깨워 보지만 서현은 무의식 상태!

주위에 있던 군인들 역시 뒷목이 초록색으로 변한 채,

감금돼 있던 서창을 풀어주고.

동녘 저항해 보지만, 오히려 동녘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군인들.

EXT. 도로 - DAY

총을 든 부대원들 뒷목에도 역시 초록불이 들어와있고,

DR.NEX 군단이 아닌 서로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다!

장교급으로 보이는 나이든 군인들은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고,

젊은 대원들을 말리다가 결국 총에 맞고 사망하고.

치호, 준호, 준섭 역시 초록불이 들어온 채로 서로에게 총을 겨눠 난사한다!

뒤엉켜 충돌하는 차량과 바이크들!

오리엔티스 대원들 바닥에 쓰러져 낙오하고,

치호, 바닥에 떨어질 때 장갑이 부서지면서 디스커넥트가 되고.

INT. 은성의 차량 - DAY

은성, 치호와 다른 대원들의 상태 디스커넥트 된 것을 보곤.

은성
치호! 대원들 좀 부탁해!

하며 수송차량을 쫓는다.

INT. 수송 차량 안 - DAY

서창, 코카가 운전하는 바이크/차량으로 점프하고.

서현, 안테나 모드가 꺼진듯 실신한다.

서현을 계속 흔들며 깨우는 동녘!

서현의 정신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EXT. 도로 - DAY

급격히 우회하며 샛길로 빠지는 DR.NEX 군단들.

은성, 공격해 보지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군단들.

그런데 앞쪽에 거대한 장애물이 보이는데,

수송차량이 계속 직진 중이다!

은성, DR.NEX를 포기하고 수송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운전석 쪽으로 차를 멈추라고 손짓 하는데.

INT. 수송 차량 운전석 - DAY

차량의 운전자 사망한 상태이다!

시체의 발이 엑셀을 계속 누르고 있다.

EXT. 도로 - DAY

수송 차량, 앞쪽의 장애물들을 계속 들이 받으며 직진한다!

은성, 수송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서, 동녘과 서현을 본다.

동녘, 서현을 우선 은성의 차량으로 겨우겨우 건네어 넘기고,

동녘도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동녘의 발목을 잡는 군인! 멜트다운된 좀비 상태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인이 동녘을 감싸 안기 시작하고!

계속 장애물을 향해 달리는 차량!

동녘 라이딩 건을 꺼내어,

서현에게 발사하는데!

광! 하고 장애물과 부딪히는 수송 차량!

과과광!!! 폭발하는 수송 차량!

폭파를 피해 급선회하며 멈추는 은성의 차량.

은성과 서현, 엄청난 폭발을 보면서 망연자실한다.

은성
동녘의 의식 느껴져?

서현
아니...

은성
... 아무리 라이딩을 했어도 원래 바디의
바이탈 사인이 꺼지면 어차피 의식도
죽어버리니까..

서현
...

은성

... 다시 원래로 돌아왔을 뿐이야.

서현

... 그래도... 나는 개가 좋았어.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게된 건 싫지만.

흐느끼기 시작하는 서현,

서현을 감싸 안아주는 은성.

그때 갑자기 서현에게 들리는 목소리.

동녘(V.0.)

저기요! 분명히 제가 좋았다고 하셨죠? 저도 서현 씨가 참부터 좋았어요! 원래 부부였다고까지는 생각 못 했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제사 받는 거 정도는 생각했거든요.

깜짝 놀라는 서현.

서현

뭐야!? 너 살아 있어? 지금 내 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은성 놀라며.

동녘(V.0.)

네.. 맞아요. 그니까 일단 제 몸부터 좀 찾아봐줄래요? 아직 살아있나 봐요.

서현, 급히 폭파된 차량으로 달려가는데.

은성, 따라가며.

은성

뭐래? 살아 있는 거야?

서현, 불에 탄 군인들의 시체 더미를 뒤지는데,

그 아래 타지 않은 채 누워 있는 동녘의 몸을 찾는다.

서현, 동녘의 심장에 귀를 대고, 박동을 확인한 뒤.

동녘의 코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

서현
바이탈 살아 있어.

은성
정말? 알았어. 일단 지원을 부탁할게.

차량으로 가는 은성.

동녘(V.0.)
저기 근데 인공호흡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보통 그런 게 기본 아닌가?

서현
(안도의 웃음)
너 농담하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동녘(V.0.)
하긴.. 키스도 서로 느낄 수 있을 때 해야지..
좀 참아볼게요 그럼.

서현
...근데 이거 네 몸이 아닌데도 우리 의식이
공존하는 거야? 원래 이래?

동녘(V.0.)
글쎄요. 저도 비히클만 해봤지 내가 라이딩하는
건 첨이라.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의아한 표정의 서현에서..□

INT. 오리엔티스 치유실 - NIGHT

치호와 준호, 준섭 등등이 치유용 캡슐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전부 의식이 있는 상태.

동녘의 몸 역시 치유용 캡슐에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서현의 몸도 검사용 캡슐에 들어가 있고,

은성과 한재호 그리고 다른 대원들이 서현의 의식 데이터를 살피고 있다.

재호

서현과 동녘의 의식 비율은 어떤 상태지?

은성

지금 거의 둘이 동일하게 활성화 상태입니다.

재호

동녘 바디의 바이탈 상태는?

대원1

지금 빠르게 회복세입니다. 오히려 다른
대원들보다 회복이 빨라요.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의식을 트랜스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호

..엔지누스인가...

은성

네?

재호

N-GENUS 신인류 말일세. 지후는 의식의 완벽한
이식을 넘어서서 엔지누스를 지향하고 있었거든.
은성 너에게 실험했던 일들도 같은 맥락이었고
말이야.

은성

아.. 네..

은성, 기억을 떠올리기 싫은지 표정이 어두워지고.

재호, 대원에게 묻는다.

재호

지후의 기억은 더 떠오르는 건 없나?

대원1

아직은 동녘 상태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재호

서현의 기억은?

서현이 대답한다.

서현

저도 다른 기억이 떠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행동력은 저보다 동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의지보다는 동녘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아 좀! 손 좀 내려놔!!

서현,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주물거리고 있다.

서현, 손을 떼려는데 다시 손은 가슴으로 가려 하고..

동녘 의식의 소리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들린다.

동녘(V.0.)

아니.. 내가 일부러 만지는 게 아니고, 가슴
쪽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서 긁는 거예요? 안
간지러워요?

어이없는 은성.

은성

너, 서현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동녘(V.0.)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엉?

은성

넌 내 아버지로 인정한 적 없어. 그리고 내
아버지라면 내가 더 죽이고 싶을지 몰라.
당장이라도 너의 몸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

은성, 동녘의 캡슐 앞의 플러그를 뽑을 기세로 잡아 채는데,

동녘(V.0.)

어어어!! 뭐 하는 거야!! 안 돼!!!

재호, 흥분하는 은성을 붙잡으며.

재호

은성아.. 참아야 한다. 아직 우리가 알아 내야
할 것이 많아.

겨우 분을 참는 은성.

동녘(V.0.)

근데요 원장님. 제가 지금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참을 수 없는 느낌이고 배
아래 쪽이 움찔움찔 거리는데요..

재호

그래? 무슨 일인지 바이탈 체크 좀 해 봐!

대원1

다른 변화는 없는데요?

서현, 한심하단 표정 지으며.

서현

야..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모르냐?

동녘(V.0.)

아.. 지난 번엔 네가 그러더니... 남자랑
여자는 확실히 다르긴 한가보네.. 큰 거야,
작은 거야?

서현

아, 됐어.

(재호를 향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재호, 고개를 끄덕이곤 대원에게.

재호

일단 바이탈에 큰 문제가 없으니 여기까지
하기로 하지. 동녘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
트랜스퍼 준비만 하고.

대원1

네, 알겠습니다.

은성의 표정 아직 어둡다.

INT. 서현의 방 - NIGHT

서현, 침대에 누워 있다.

아직도 가슴을 주무르고 있는 손.

서현(V.O.)

그만 좀 만지고 자자.

동녘, 대답 없다.

서현, 손을 내려놓으며.

서현(V.O.)

뭐야. 애는 자면서 계속 만지고 있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서현의 의식을 침범하는 낯선 기억!

<몽타주 - 지후의 기억>

- 쿵! 부딪히며 바닥에 깨지는 두개골!

- 심하게 훼손된 서현의 시체, 두개골 밖으로 드러난 뇌와 신경에 연결되어있는 케이블을 바라보는 1인칭의 시선.

“아직 의식이 살아 있어!! 기억도 살아 있어!”

- 복제된 유아 서현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

-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1인칭의 지후의 모습. 뒤에서 한재호와 서창 다가와서 ‘성공했어!! 축하해!!!!’ 하는데, 씩소를 짓는 지후의 얼굴.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서현(V.0.)

야!! 동녜!! 너 봤어? 지금??

동녜, 계속 답이 없다.

얼른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서현.

INT. 오리엔티스 실험실 - NIGHT

서현의 몸에 다시 잔뜩 케이블이 꽂혀있고,

재호, 은성을 비롯 대원들 모여있다.

화면에 아까 서현이 본 지후의 기억 재생되고 있다.

재호

어디까지 열린 상태지?

대원1

지금 측정되는 데이터로는 80퍼센트 이상 열린
것 같습니다!

재호.. 곰곰히 생각하며.

재호

상대의 몸에 들어갔을 때 비밀이 열린다.. 지후
다운 생각이군..

은성

원장님. 그럼 지금 서현의 몸에 들어있는 의식은
지후인가요, 동녘인가요?

재호

글쎄. 직접 물어보자구.

재호, 서현에게

재호 (CONT'D)

지금 거기있는 건 누구인가? 지후인가,
동녘인가?

서현.. 답이 없다.

입을 여는 서현.

서현

아직, 답이 없어요. 저도 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성

서현아. 너는 괜찮아?

서현

글쎄.. 좀 멍하긴 해.. 꿈꾸는 느낌이야.

눈을 감는 서현.

재호, 대원에게 체크한다.

재호

지금 서현 의식 상태는? 서현의 기억은 열리고
있나?

대원1

일단 서현의 기억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 수치가 떨어져가고 있어요!

화면에 서현의 기억 재생된다.

<몽타주 - 서현의 기억>

- 깨지는 유리잔
- 울고 있는 어린 은성
- 실패한 은성의 클론을 죽여서 실험용 캔에 담는 서현
- 누군가에 쫓겨 뛰어나가는 서현

삐삐삐!! 급하게 울리는 비상음.

대원1 (CONT'D)

서현의 기억이 열림과 동시에 의식이 2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상태입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른 동녘의 의식을 트랜스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놀라는 은성, 눈 감은 서현을 흔들어 깨운다!

은성

서현아! 서현아!!! 일어나!!! 엄마!! 엄마!!!!

그때 갑자기 눈을 뜨는 서현.

동녘의 목소리 시스템을 통해 들리며.

동녘(V.O.)

은성아..

은성, 동녘의 말투와 다른 느낌에 섬찔 놀라서 물러서면.

서현, 고개를 돌려 한재호를 보며.

동녘(V.0.)

재호. 오랜만일세. 자네도 늙었구만.

놀라는 한재호.

재호

지후 자네인가?

서현, 고개를 끄덕이는데.

소리치는 대원1

대원1

서현의 의식 수치 5퍼센트 입니다! 서현의
의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은성, 다급하게 재호를 보며.

은성

원장님!! 얼른 트랜스퍼를!

재호, 난감하다.

재호

지후! 거기 남아주게!! 할 말이 많아!

대원1

1퍼센트입니다!

은성

원장님!!

재호..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고.

재호

트랜스퍼 실시!

신속하게 동녘의 몸으로 의식을 트랜스퍼 하는 대원1.

긴장하는 은성.

동넵 쪽으로 의식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서현을 계속 흔들어 깨우는 은성.

은성

엄마!!! 엄마!!!! 안 돼요!! 서현아!!

서현아!!!

서현의 눈동자. 다시 초점을 찾는다.

은성을 보며.

서현

은성아... 은성아... 엄마야..

은성

엄마!!! ... 고마워요!!! 서현아.. 고마워!

은성, 서현을 안고 울부짖고..

재호, 동넵의 몸앞으로 다가가는데..

눈을 뜨는 동넵.

재호

지후.. 자네인가...?

동넵, 재호를 바라보다가.

동넵

네? 원장님.. 저 동넵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낙심하는 재호.

어리둥절한 표정의 동넵.

그런데 동넵의 표정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괴로움을 느끼는 듯 보인다.

동녘 (CONT'D)

아아아!!!

머리를 감싸고 고통 받는 듯한 동녘, 놀라는 한재호!

한재호

지후!!.. 지후!!! 어서 나와주게!!

동녘, 고통이 잦아들더니.. 눈빛 돌변한다.

한재호를 향해 미소짓는 동녘.

동녘

생각보다 쉽지 않구만.. 재호.

재호

지후!! 고맙네!! 고마워!

환한 표정의 재호, 역시 미소 짓는 동녘.

INT. 재호의 사무실 - NIGHT

지후의 과거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는 동녘.

한재호, 옆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건네고 있고,

한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서현과 은성.

동녘

그때 내가 서현을 마지막으로 클론하고 서창이
나를 죽였을 때, 서현을 바로 캡슐에서
빼내었나?

재호

그랬었지. 캡슐에서 더 이상 뭘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바로 꺼내어서 생활을 시켰어.

동녘

그때 서현의 바이탈 에이지는?

재호

8살. 은성과 거의 같은 나이였네. 서현에겐
기억이 주입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고, 은성과
친구로 지금까지 쪽 커왔던 거야.

서현도 듣고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현

동녘.. 아니 지후는.. 지금 제 기억의 얼굴과는
많이 다른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원장님?
아니.. 지후, 당신에게 직접 물어야 하나?

동녘

글쎄. 내가 나를 클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신체 모디파이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모디파이 할 거면 좀 잘하지 .. 지금 썩 맘에
드는 몸은 아닌데.

은성,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은성

그럼 동녘을 클론한 것은 누구입니까?
DR.NEX입니까, 지후 당신입니까?

동녘, 은성을 지긋이 바라보며.

동녘

은성이 너는 결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군.

은성

...

동녘

글쎄. 나도 내가 나를 클론한 건지. 아니면
서창이 나를 죽이고 클론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 데이터에도 그 부분은 없었나?

재호

일단 모든 기억이 살아난 걸로 잡히는데, 자네가 서현 클론을 완성한 날 무얼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만 없어.

은성

DR.NEX가 그것도 막아놓은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기억과 동녘.. 지후.. 당신의 기억이 서로 맞물려야 풀리게 하는 건.
DR.NEX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클론인 동녘을 만들 기술을 DR.NEX가 가졌다면 이미 그들이 먼저 클론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아도. 저는 동녘을 클론한 건, 지후 당신일 것 같습니다.

재호

하지만, 은성아. 지후는 서현의 클론을 완성한 날 서창에게 죽임을 당했어. 내가 아는 한 지후 스스로를 다시 클론할 시간은 없었다.

은성

아버지는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서창에게 진짜 죽임을 당한 건지. 아니면, 한 원장님에게 기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자처한 건지..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녘 눈빛, 매섭게 은성을 향하고, 재호 당황한다.

재호

은성아.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 같다.

은성

아니요. 자식을 실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식을 죽이는 일을 반복 시켰던 사람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은성, 동녘을 향해.

은성 (CONT'D)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어머니의 원수로 기억합니다.

서현, 흥분하는 은성에게

서현

은성아. 이러지 마.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서현 재호에게 꾸벅 인사하고, 은성을 데리고 나간다.

EXT. 오리엔티스 외부 일각 - NIGHT

서현과 은성, 먼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다.

서현

은성아. 나는 늘 너를 좋아했는데..

은성

...

서현

그게 내 무의식의 모성애 때문이었나 생각하면..
뭐랄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은성

...

서현

남자로서 늘 너를 안고 싶어 했는데.. 항상
거리감을 두는 너를 보며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나를 뭐랄까. 발가벗기는 기분이랄까..

은성

...

서현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방식이지만, 너를 사랑하는 거에 더 이상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

은성

... 지금 서현입니까.. 아니면 내
어머니입니까.

서현.. 머뭇거린다.

서현

나도 잘 모르겠어.. 너와 친구처럼 자란 기억도
그대로 있고.. 너를 키워냈던 기억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은성

나도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클론이란 걸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현, 처음 듣는 은성의 고백에 조금 충격.

은성 (CONT'D)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어머니로서인지 서현 그 자체로인지 저야말로
늘 고통 속에 방황하며 살아야했습니다.

서현

은성아.. 차라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은성

어떻게요? ... 우린 같이 오랜 시간을
커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서현

...

은성

아니면, 나 그냥 너 사랑하니까 우리 사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서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흐른다.

서현

정말.. 달콤하고도 씁쓸하네. 나는 지금에야
느끼는 거지만.. 은성이 너는.. 그 수많은
시간을 .. 혼자 슬프게 왈츠를 추고 있었던
걸까.

은성

네.. 아마도요.. 그것도 젖은 구두를 신고..
비가 오는 중에서 추고 있었던 거 같아요.

쓸쓸하게 눈물과 미소가 공존하는 서현의 표정.

INT. 오리엔티스 일각 좁은 통로 - NIGHT

좁은 통로를 걷고 있는 동녘과 재호.

재호

이 길은 기억하나?

동녘

물론...

재호

...서창도 아직 기억하고 있더군.

동녘

... 그래? 어떻게 알았나?

계속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가는 재호.

뒤따르는 동녘.

INT. 오리엔티스 캣츠아이 장소 - NIGHT

서창이 캣츠아이를 훔쳤던 장소로 들어서는 동녘과 재호.

재호, 캣츠아이가 놓여 있던 장소로 가며.

재호

지난 번에 서창이 기지를 습격해서 여기 있던
캣츠아이를 쏙 빼갔었거든.

동녘

... 캣츠아이..

동녘,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데.

재호, 그런 동녘을 보며.

재호

자네.. 지금 동녘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가?

동녘

... 지금.. 사실 좀 혼란스러운 상태야. 동녘의
느낌은 잠겨 있으나 단편적인 기억 밖에는...

재호

...동녘은.. 서창의 편은 아니지.?

동녘

... 무슨 말인가?

재호

... 내가 자네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달리 묻는 거야. 나는 지금 자네가 지후라고
믿어도 되나?

동녘

... 그렇다고 생각하네.

재호, 동녘의 눈빛을 살핀다.

흔들림없이 서로 쏘아보는 눈빛들.

재호, 무언가 결단한 듯,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넣는데,

갑자기 열리는 뒷쪽의 문.

문 안쪽 방을 보면,

캣츠아이가 공중에 붕 떠 있다.

재호

저것이 캣츠아이의 원본이네. 자네가
찾아내었던.

동녘, 놀란 표정으로 캣츠아이에 다가가고..

캣츠아이에 손을 대자..

갑자기 동녘의 의식에 다른 이미지가 끼어든다.

EXT. 광활한 대지.. 혹은 바다 - DAY

광활한 곳에 덩그러니 놓인 문.

지후,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INT. 하얀 기억의 공간 - DAY

하얀 기억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지후..

그곳에 또 하나 덩그렇게 놓인 문.

지후가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사이즈.

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INT. 서현의 수술실 - NIGHT

젊은 지후가 수술대의 서현을 응급처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지후..

공간의 사람들은 지금의 지후가 안보이는 듯 하다.

한 쪽에 또 다시 있는 더 작은 사이즈의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INT. 서현 클론 실험실 - NIGHT

서현을 클론하고 있는 지후 보이고.

문을 통해 들어온 지후..

젊은 지후의 뒤로 돌아가서..

젊은 지후의 작업을 본다.

젊은 지후 무언가 코드를 푸는 느낌에 환호성을 지르고 뛰어나간다!!

뒤에서 코드를 지켜본 지후..

비밀을 알게 된 표정!

INT. 오리엔티스 캣츠 아이 장소 - NIGHT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동녘.. 무언가 깨달은 표정.

재호

지후? 자네 괜찮나? 뭐가 좀 느껴졌어? 기억이 돌아온 건가?

동녘, 재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

INT. 서현의 방 - NIGHT

서현... 우두커니 앉아, 램프를 껐다 켜다 반복하고 있다.

서현(V.O.)

죽고 싶어..

램프가 켜졌을 때 보이는 서현의 얼굴 침착하다.

서현(V.O.)

죽고 싶어..

다시 램프 오프.

서현 (V.O.)

죽고 싶어.

다시 램프 온.

서현(V.O.)

죽고 싶은 이유?

램프 오프.

서현(V.O.)

끝을 알아버렸으니까. 아니. 시작을 안 건가...

INT. 오리엔티스 통로 - NIGHT

동녘, 빠르게 걸어가고 있고 은성 뒤따르는데,

은성

너 진짜? 기억난 거 맞아? 괜히 뺑치는 거 아니야?

동녘

한 원장이 시스템 준비 들어 갔어. 얼른 서현부터 의식을 고착화 해야 해.

은성

서현의 의식이 흔들린 건 너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어차피 서현은 의식이 하나 아니야?

동녘

지금.. 아마 과거 기억 때문에 유사 멜트다운이
올 수도 있어. 빨리 막아야 해.

뛰어나가는 동녘. 뒤따르는 은성.

EXT. 오리엔티스 중정 - NIGHT

과거 서현이 뛰어내렸던 곳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서현.

서현(V.0.)

죽고 싶은 이유.

서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서현(V.0.)

완성될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해버렸으니까.

서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은성(OFF SCREEN)

서현!! 거기서 뭐 해!

서현, 돌아보면.

저쪽에서 동녘과 은성 뛰어오고 있다.

동녘과 은성의 얼굴을 보는 서현의 머릿 속에 스치는 기억들.

<몽타주 - 서현의 기억>

- 사춘기 서현, 은성의 볼에 입을 맞추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은성. 실망하는 서현.

- 클론 행사장. 옆에 선 은성의 손을 슬쩍 잡는 서현. 뿌리치듯 내려놓은 은성.
- 갇난 아기 은성을 안고 있는 서현.. 은성아.. 은성아...
- 마취총을 맞고 쓰러진 은성 클론들을 포르말린 병에 채우는 서현
- 깨지는 컵
- 깨지는 두개골..

동녘과 은성, “안돼! 서현아!!!” 외치는데..

그대로 바닥으로 몸을 던지는 서현!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두개골.

3부 끝.